

『사랑』(1938), 또 하나의 전향서*

최주한**

목차

1. 성자·속물·괴물
2. 동우회사건과 두 개의 전향서
3. 순옥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
4. 제국의 전쟁 동원, 그 터널의 입구에서

국문초록

기존 논의에서 『사랑』의 저자 이광수의 초상은 ‘성자’이거나 ‘속물’ 혹은 ‘괴물’이라는 상이한 형상으로 호명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독해는 각자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집필 무렵의 이광수에 대해서는 물론 당대 독자들에게 『사랑』이 열광적으로 읽혔던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사랑』 집필 무렵의 이광수가 놓인 자리, 곧 동우회사건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는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광수가 쓴 두 편의 글에 주목한다. 일본어로 쓴 전향서 「합의」과 조선어로 쓴 소설 『사랑』이 그것이다. 전자가 총독부 당국을 향한 공식 발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후자는 전향서의 공식 논리가 억압한 보다 내밀한 층위에서 전향이 제기하는 문제를 우화적으로 서사화하여 식민지의 독자를 향해 쓴 은밀한 또 하나의 전향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 다른 하나의 논점은 동우회사건에 관한 동향에 어두웠던 당대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4S1A5B5A0201056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강대학교

독자들이 『사랑』을 당대 제국의 본격적인 전쟁 동원하에 놓인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로 독해했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독해 가능성은 총동원체제하 일반 민중들과 장차 제국의 나팔수로서 전쟁 동원의 선두에 나서게 될 식민지 지식인 이광수가 근본적으로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기에 가능한 해석상의 교차였다는 것이 본고의 추론이다.

주제어: 이광수, 『사랑』, 성자, 속물, 괴물, 동우회사건, 전향서, 총동원체제, 당대 독자

1. 성자 · 속물 · 괴물

이광수의 전작장편 『사랑』은 1938년 10월과 이듬해 3월 박문서관에서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해 봄 이광수가 병석에 누워 「무명」을 구술 필기하여 끝낸 이후 집필에 착수하여 후편이 탈고된 것이 12월의 일이니,¹⁾ 구상에서 집필까지 채 일 년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사랑』 전편은 초판이 간행된 지 엿새만에 천 부가 팔리고 불과 두 달만에 이천 부의 초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당대 독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²⁾ 그러나 평단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사랑』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동인, 김남

1) 이태준은 1938년 봄 이광수가 병보석으로 입원해 있던 의전병원을 찾았다가 「무명」의 원고를 대한 일이 있는데 “그후 반년이 다 못 되어” 『사랑』의 전편을 대하게 된 감탄을 남긴 바 있다(이태준, 「춘원의 全作」, 『博文』 3, 1938.12, 27면). 한편 『사랑』 후편 탈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박문서관 편집실의 편집후기 “춘원 이광수 선생이 『사랑』 후편이 이제 탈고되어 신년 첫 사무 보는 날 허가를 제출키로 되었습니다.” 『編輯室日記抄』, 『博文』 4, 1939.1 (1938.12.20 인쇄), 30면 참조.

2) 『사랑』 전편의 경우 이듬해 2월의 재판에 이어 3월 3판, 7월 4판, 12월 5판, 1940년 2월 6판, 8월 7판, 11월 8판, 1941월 6월 9판을 간행하는 출판계 공전의 기록을 세웠다. 『사랑』의 간행 현황에 대해서는 최주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읽고 있나, 「근대서지」 17, 2018, 116면 참조.

천 등은 물론이고,³⁾ “작자의 이 소설 쓴 의도를 분명히 붙잡아 준 이는 팔봉 김기진씨⁴⁾였다”고 이광수가 각별히 언급했던 김기진조차도 “소설의 주인공 이하 제인물의 성격의 창조, 사건의 설정, 환경의 해명, 행동의 구상화 등이 모두 소설적으로 덜 되었다⁵⁾”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다면 소설적 결여에도 불구하고 김기진이 『사랑』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김동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겹쳐놓고 읽을 때 한층 명료해지는데, 당시 두 사람은 『사랑』에 대해 서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식이란 “장차 이를 비상한 환경에 대하여 이를 정면으로 맞자면 죽음이오 굴복하면 삶⁶⁾”이라고 김동인이 예리하게 갈파한 대로 동우회사건에 대한 작가의 거취 문제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였다.

그 뒤 나는 때때로 생각하였다. 그때 그런 거대한 고민(사상적 고민이 아니라 거취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집필중인 작품이 어떤 것이 될까. 물론 그 고민이 어떤 형식으로든 작품에 나타날 것은 정한 이치로되 兩路의 고민 때문에 작품에 무리가 안 생길까. 작자의 거취가 미정이니만치 고민은 고민대로 있고도 작중인 물로 하여금 무리히 해결짓게 하기 위하여 그 인물의 성격, 환경, 교양 등에 맞지 않는 언행 등을 작자는 억지로 시키지 않을까. 『사랑』 상편이 발행된 것을 알고 나는 내 근심이 헛 근심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중략] 요컨대 『사랑』은 소설로 볼 것이 아니다. 혈액에 무엇 일호 무엇 이호 등은 희극일 뿐이다. 이 소설은 작자의 고민의 기록으로 볼 것이며, 따라서 작중 인물의 (모순으로 충일된) 행로

3) 김동인은 동우회사건과 관련한 작가의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김남천은 육체와 정신에 대한 기계적 이원사상과 불교적 인과 법칙에 근거한 작가의 사상적 관념이 우선하여 『사랑』의 소설성을 해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동인, 「춘원과 『사랑』」, 『博文』 3, 1938.12, 12면; 김남천, 「11월 창작평」(『조선일보』, 1938.11.9-13),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 I』, 도서출판 박이정, 2000, 429-431면.

4) 「이광수 선생에게 문학·연애·종교를 묻는 여류문사의 모임」, 『삼천리』, 1939.7, 56면.

5) 김기진, 「춘원의 『사랑』」, 『博文』 3, 1938.12, 26면.

6) 김동인, 앞의 글, 11면.

는 전혀 보지 말고 단지 대화 형식으로 된 안의 설교만을 볼 것이다. 교설 중에서도 무리히 강조하는 전생내생의 인과응보론도略할 필요가 있고—이렇듯 요령 있게 보면 독자는 여기서 도덕철학상 얻는 바 매우 크리라 본다.7)

나는 『사랑』을 읽으면서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하였다. 하면서도 끝까지 다 읽지 아니치 못했다. 왜? 이 책엔 강하게 읽히게 하는 힘이 있었던 까닭이다. 그것은 모순당어리지만은 생의 고뇌에서 해설하고자 부동부동 애를 쓰는, 춘원 자신의 귀한 영혼의 자태가 책장마다 내배이고 있는 까닭이다. [중략] 나이 오십에 가까운 사람이, 더구나 춘원과 같이 생애에 과란이 중첩하여 온 사람이, 한 가지 신념을 굳게 파악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 신념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런 고로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에 살다가 이같은 사랑에 죽는 길은 이제는 춘원의 운명의 길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 길동무에게 주는 지침으로서의 전작 『사랑』이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라면, 이 소설의 주인공 이하 제 인물의 성격의 창조, 사건의 설정, 환경의 해명, 행동의 구상화 등이 모두 소설적으로 덜 되었다, 거짓말 같았던 대도 그에게 치명적이 아니다. [중략] 후편이 어서 나와서 석순옥, 아닌, 허영 등을 下心으로 한 ‘참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보여주기 바란다.8)

김동인이 『사랑』의 未完性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명분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작가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김기진은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그 운명의 길을 감수하고자 하는 영혼의 고투를 보고 있었다. 명분 찾기에 골몰하여 작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작가가 못마땅했던 김동인은 모순투성이의 작품을 경중경중 건너뛰며 읽었고, 주어진 운명의 길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영혼의 고투에 공감했던 김기진은 모순당어리의 작품을 끝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 영혼의 고투가 가닿을 귀결까지 손꼽아 고

7) 김동인, 앞의 글, 11면.

8) 김기진, 앞의 글, 26면.

대했던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작품 해석의 태도나 그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시선은 정반대였을망정—결론은 이미 나 있고 관건은 명분 찾기에 있다고 본 김동인과 작자의 고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 김기진—두 사람은 매우 정확한 위치에서 『사랑』에 반영된 이광수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랑』의 집필 무렵 이광수는 전향과 그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도산의 서거 후 『사랑』의 집필에 착수한 이광수가 동우회 회원들과 함께 전향서를 경성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랑』 하권의 탈고를 한 달 가량 앞둔 11월 3일의 일이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성급하게 『사랑』에서 총동원체제하 식민지 피시즘 담론의 반영을 읽어내고 있거나, 정반대로 당대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문면에 드러나는 다소 막연한 종교적 지향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종교적 지향성을 강조하는 독해의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광수 전집의 간행과 더불어 이광수의 민족주의적 면모가 재평가되면서이다. 이광수 전집에 수록된 『사랑』의 해설을 쓴 주요한, 이광수 전집과 더불어 기획 간행된 『춘원 이광수』(1962)의 저자 박계주와 곽학송, 이광수 전집 간행 당시 실무를 맡았고 이후 『정본 사랑』(1991)을 새롭게 간행한 노양환, 그리고 이광수 연구자 윤홍로 등은 『사랑』에 그려진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하려 애쓰는 영혼의 고투야말로 이광수가 만년에 도달한 종교적 경지라 하여 『사랑』의 저자 이광수에게 ‘성자’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⁹⁾ 이러한 독해 경향성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 『사랑』에 전면화된 종교적 사유에서 병든 세계로 환기되고 있는 당대의 부정적 세계를 극복하는

9) 주요한, 「작품해설」,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62;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노양환, 「해설」, 『정본 사랑』, 우신사, 1992;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이상적인 사랑의 가치’를 읽어내고 있는 정진원, 방민호, 서은혜, 이계열 등의 연구가 그러하다.¹⁰⁾ 이들 독해의 계보에 따르면, 『사랑』에 그려진 ‘사랑’은 이광수가 만년에 도달한 이상적인 종교적 경지이자 ‘성자’적 삶에의 希求와 맞닿아 있다.

반면 『사랑』을 총동원체제하 식민지 과시즘 담론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환기하는 이광수의 초상은 정반대의 형상을 띤다. 일찍이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를 선도했던 이경훈은 『사랑』을 일본국가가 수행한 생체실험 또는 나치의 육체정치의 문학적 대응물로 간주한다. 안빈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옥의 인생은 “인체실험의 정수”이자 “인체실험을 넘어 戰死에 이르는 ‘無我’의 생물학”의 구현이며, 그 자체로 “총동원, 전쟁, 불교를 심미적으로 매개하는 식민지산 과시즘의 핵심”이 된다는 주장이다.¹¹⁾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순옥과 안빈의 관계를 “훈육과 감시”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간주하는 김현주는 순옥의 자기희생적 형상에서 일본국가의 전체주의에 귀속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식민지 조선의 욕망을 읽어내고 있고,¹²⁾ 차승기 또한 ‘절제의 몸짓’에 기초한 순옥의 자기희생을 조선사회의 ‘부정성’에 대한 혐오와 ‘직역봉공’과 ‘멸사봉공’의 실천 곧 “충성의 몸짓”으로 귀속시키고 있다.¹³⁾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한 여성 인물들에게서 당대 총후 여성담론의 반영을 읽어내고 있는 김경미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¹⁴⁾ 이들 독해의 계보에서 『사랑』에 그려진 ‘사랑’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복종이거나 혹은 복

10)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0, 2006;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통합적 논리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 2009;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사랑’ 형상화와 자전적 언술행위」, 『구보학보』 13, 2015; 이계열, 「사랑의 구현 양상 - 이광수의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11) 이경훈, 「인체실험과 聖戰」, 『동방학지』 117, 2002, 224-242면.

12) 김현주, 「공감적 국민-민족 만들기」, 『작가세계』, 2003, 여름, 75-78면.

13) 차승기, 「고요한 엄숙 고요한 충성-이광수의 예의작법과 감성적인 것의 나눔」, 『한국학연구』, 29, 2013, 145-153면.

14)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0, 2012, 17-22면.

중으로 귀결될 동원의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제국의 신민’으로서 일본국가라는 대주체의 승인을 갈구하는 ‘속물’의 도덕률일 뿐이다.

한편 이광수 소설의 감성적 핵심으로서 ‘도덕주의’ 및 ‘자기희생’의 문체에 주목해온 서영채가 포착해낸 이광수의 초상은 ‘속물’이기보다 그로테스크한 ‘괴물’에 가깝다. 일찍이 『사랑』에서 종교심으로부터 고양된 이광수의 도덕적 엄숙주의를 “근대의 포로”이기를 선택했으되 “지사적 주체”의 자리를 고집하는 모순된 의식구조의 유일한 선택지(2002)로 해석했던 그는 이후 『사랑』에 구현된 자기희생을 “고통받는 신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기괴한 괴물성”(2011)에 대한 비유로까지 밀고나간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수행적 힘으로 작용하듯, 이광수의 인물들이 고수하는 ‘자기처벌에의 의지’(2013)를 구현한 기괴한 희생자의 위치는 자기희생을 통해 다시 세워질 민족공동체에 대한 회귀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이러한 ‘도덕주의’에 근간한 윤리적 형식이야말로 절대기표로서의 민족이 지탱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그 빈자리를 ‘대동아공영권’의 환상으로 대신할 수 있었던 “윤리적 괴물”(2009)의 탄생을 예비한 것이었다는 통찰이 드러내는 ‘괴물’의 형상은 치명적이기까지 하다.¹⁵⁾

흥미롭긴 하지만 『사랑』의 저자 이광수를 각각 ‘성자’와 ‘속물’, ‘괴물’로 호명해내고 있는 이들 세 가지 독해는 각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전향을 전후한 시기 이광수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세 가지 관점 내부에 머무르는 한 『사랑』 집필 무렵의 이광수에 대해서는 물론 당대 독자들에게 『사랑』이 그토록 호응을 얻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요원하다. 근본적으로 이들 독해는 『사랑』 집필 무렵의 이광수가 놓인 자리를 초월해 있거나 어긋나 있고, 혹은 과도하게 思辨에 의지한 관념적 당위 차원의 논의

15)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서영채,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4; 서영채, 「죄의식, 원한, 근대성: 소세키와 이광수」,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타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 2013.

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양할수록 좋다. 다만 그 다양한 해석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적어도 『사랑』의 집필 무렵 이광수가 놓인 자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랑』 집필 무렵의 이광수가 놓인 자리, 곧 전향을 전후한 시점의 이광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 무렵 이광수의 문제의식이 『사랑』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사랑』에 대한 당대 독자의 기대지평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기왕에 『사랑』을 전향소설로서 독해한 논의가 없지 않지만,¹⁶⁾ 그동안 새로운 자료들도 발견되었고 또 관점은 달리해도 기존 연구에서 얻은 다양한 통찰 덕분에 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동우회사건과 두 개의 전향서

1937년 6월 7일 이광수 이하 동우회 간부 7명이 종로서에 붙들려가고 이후 경성, 평양, 선천 각 지역에서 1백81명의 회원이 잇달아 검거된다. 취조의 종료와 동시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회원은 91명, 이 가운데 이광수를 비롯한 42명이 예심에 회부되었다. 관헌의 보고문서에 의하면, 동년 5월 기독교면려청년회 조선연합회 서기 이양섭의 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취조 중 관련자 정인과의 임의 취조 결과 동우회가 단순한 수양단체가 아니라 독립운동단체인 흥사단의 경성지부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성지방방법원 검사정이 동우회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¹⁷⁾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¹⁷⁾ 당국의 의중은 분명했다. 1936

16) 김윤식, 「전작소설 『사랑』-성자에의 길」,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 1999; 서경석, 「춘원의 『사랑』론」, 『대구어문논총』 14, 1996; 최주한, 「『사랑』-자기희생과 진정한 사랑의 역설」,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17) 「동우회 관계자 검거 및 취조에 관한 건」(1937.6.9), 『도산 안창호 자료집 1』, 국회도서관, 1997, 181-182면; 「흥사단(동우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1937.10.28), 같은 책, 268-269면; 「동

년 8월 鮮滿一如, 國體明徴, 內鮮一體의 3대 정강을 내걸고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의 정책에 따라 온건한 민족주의 단체라 해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결국 당국의 종용에 의해 8월 5일 신윤국 이하 9명의 대표자 명의로 해산계를 제출한 데 이어 9월 20일 평양 및 선천의 지부도 해산계를 제출하여 동우회는 그대로 와해되고 만다.¹⁸⁾ 이후 상하이의 흥사단 원동지부가 해산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40년 7월 16일의 일이다.¹⁹⁾

그러나 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의도는 더 나아가 이들 민족주의자의 입지를 철저한 국가주의로 돌려세우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수행을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들 민족주의자의 적극적인 협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우회사건 직전인 4월경 총독부 학무국은 “社會風教를 바로잡고 文化水準의 昇揚에 중대 책무”를 진다는 목표를 내걸고 內鮮 문인들을 망라한 조선문예회의 결성을 준비한 일이 있다.²⁰⁾ 조선문인협회(1939.10)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조직으로 사실상 총독부의 ‘文教政治’를 뒷받침할 선전책으로서 문인들의 조직화를 꾀한 것인데, 당시 조선문예회의의 회장직을 제안받았던 이광수는 안창호의 만류도 있고 해서 이를 거절하고 5월 2일 창립 당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훗날 이광수는 이 일이 동 회원 김윤경의 국책 강연 요청의 거절과 더불어 동우회의 “비협력 태도”로 간주되어 조직적인 탄압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²¹⁾ 거꾸로 생각하면 동우회사건이 터진 당시 이광수는 총독부 당국

우회 및 동 지회의 해산에 관한 건」(1938.5.28), 같은 책, 531-532면 참고

18) 「동우회 및 동 지회의 해산에 관한 건」(1938.5.28), 위의 책, 532면.

19) 「興土團極東支部解散ニ關スル件」, 上海底秘 第五四一號ノ一, 1940.7.18. <http://db.history.go.kr>

20) 「社會風教를 바로잡고 文化水準의 昇揚에 중대 책무를 지고 출산되려는 官民協同 朝鮮文藝會」, 『매일신보』, 1927.4.9. 조선문예회의의 결성과 그 활동에 관해서는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02, 80-81면 참조.

21) “그해 3, 4월부터 벌써 경찰이 동우회를 건드리는 징조가 보였으니, (一)모씨에게 문학회장이 되기를 청한 것, (二)김윤경에게 심전개발강연을 청한 것 등이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다 거절되었다. 이 거절이 동우회의 비협력 태도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이광수,

이 자신들의 ‘협력’을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검거된 지 3일째 종로서에서의 첫 심문을 이광수는 “황실과 국가에 대해서 종래 충성이 부족한 것을 솔직히 참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일찍이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국체명징 정책의 성명에 따라” 동우회의 정신에 갱신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신병으로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번의 검거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²²⁾ 그러나 당국이 원하는 것이 이같이 한껏 입바른 타협의 말이었을 리 만무하다. 당장에 두 번째 심문부터는 동우회의 목적이 ‘독립’이라는 답변이 강요되었고, 당시 발열과 카리에스 신경통을 앓았던 이광수는 고문에 대한 위협과 석방에 대한 희망을 오가며 강요된 답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이광수는 8월 10일 예심에 회부되어 서대문형무소 병감에 수감된다. 그리고 동년 12월 병감에서, 이어서 12월 18일 병보석으로 의전병원에 입원하여 이듬해 4월 병상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에 걸친 예심판사의 취조에서 경찰의 조서를 인정하라

『도산 안창호』(1947),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160면). 이광수가 조선문예회의 회장직을 거절한 일은 동우회사건이 보고문서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 “안창호는 1937년(昭和 12) 4월 이광수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각별히 推獎하는 조선문예회에 가입하자 이를 암암리에 教唆하여 탈퇴시키고 조선의 文教政治를 방해했음.” 「홍사단(동우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1937.10.28), 『도산안창호 자료집 I』, 앞의 책, 367면 참고.

22) “본 피고인은 1937년(昭和 12) 미나미 총독 각하의 내선일체·국체명징 정책의 성명에 따라 동우회의 정신에 갱신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받아들였다. 동우회의 목적에는 오직 민족개조가 있을 뿐 내선일체와 국체명징에 관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본 피고인은 폐렴, 늑골 수술, 폐렴 카타르, 척수 카리에스 등으로 입원하거나 칩거, 通院 등으로 미적거리다가 6월에 이르고, 6월 7일 마침내 검거되었던 것이다. 종로서에서의 제1회 심문에서 본 피고인은 황실과 국가에 대해 종래 충성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참회하고, 그 밖의 심문에 대해서는 하나를 물으면 나아가 둘을 대답하는 식으로 사실을 그대로 솔술 진술했다. 상하이에서의 독립운동, 홍사단, 동우회에 대해 경찰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까지도 기꺼이 진술했다. 그런데 본 피고인은 留置되었고 [하락] 高等法院刑事部, 「昭和十五年 刑上 101 乃至 104號」(1941.7.21.), <http://archives.go.kr> 이 자료는 1940년 8월 동우회사건 피고측의 상고를 접수한 고등법원이 1심과 2심의 기록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이유로 1941년 7월 21일 사실 심리를 결정할 기록인데, 그 가운데 동우회사건 조사 관련 이광수의 진술서가 인용되어 있다.

는 요구에 굴복하여 8월 15일 예심의 종결을 맞는다.²³⁾ 이 과정에서 1938년 3월 10일 병보석으로 경성제대 부속병원에 입원 중이던 안창호가 사망했다. 그리고 석 달 뒤 6월 18일에는 당국의 중용하에 기소유예로 풀려난 동우회 회원 18명의 전향성명이 있었다.²⁴⁾ 무죄 석방된 기소유예자에게까지 전향이 강요되었으니, 기소된 42명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쩌면, 이들의 운명은 이광수가 명민하게 감지했던 대로 동우회사건이 터진 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이광수 이하 42명의 기소자들은 ‘前 동우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일본어로 작성한 전향서를 경성지방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예심이 종결되어 1심의 심리와 판결을 앞둔 동년 11월 3일의 일이다.

합의申訴

우리들은 병합 이래 일본 제국의 조선통치를 영국의 인도 통치나 프랑스의 베트남 통치와 같이 단순한 이른바 식민정책으로 생각해 왔다. 그리고 조선 민족은 일개 식민지 토인으로 영원히 노예의 운명에 놓인 것이라고 한탄해 왔다. 메이지 대제大帝의 일시동인—視同仁의 말씀은 실제로는 영구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사상을 품고, 조선 민족을 일본 제국의 굴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우리들이 의무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거 1년 반 깊이 반성한 결과, 조선 민족의 운명에 대해 재인식하고 종래 우리들이 품었던 사상에 대해 재검토함으로써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의 진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을 이 기쁜 결론으로 이끈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된 것은 지나사변으로 인해 명백해진 일본의 국

23) 高等法院刑事部, 「昭和十五年 刑上 101 乃至 104號」(1941.7.21.), <http://archives.go.kr>

24) 이들 동우회사건 기소유예자의 전향성명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前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에 관한 건」(1938.6.4),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1938.6.4), 「前 동우회원의 성명서」(1938.6.1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도서출판 선인, 2000, 603, 610, 613-615면 참조.

가적 이상과 미나미 총독의 몇 가지 정책과 의사표시이다.

우리들은 지나사변을 통하여 일본 제국의 국가적 이상이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것과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다. 일본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을 깊이 인식하여 우선 아시아 여러 민족을 구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동양 본래의 정신문화 위에 공존공영의 신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본 제국의 국가적 이상이자 목적을 두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도 결코 종속이나 추수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일본 국민의 중요한 구성 분자로서 이 위업을 분담하고 또 이로부터 다가올 행복과 영예를 향수할 자임을 국가로부터 허락받고 또 요구받았음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교육의 평등은 실현되었다. 가까운 장래에는 의무교육도 실시되고 병역의 의무를 조선 민족에게 실시케 할 것도 암시되어 있다. 일언이폐지하면, 일본 제국은 조선 민족을 식민지의 괴통치자가 아니라 진실로 제국의 신민으로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거기에 신뢰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음을 우리들은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종래 우리들의 오해에 기초한 조국에 대해 진실로 죄송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과 환희와 열정을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一. 우리들은 지성으로써 천황에게 충의를 바치자.
- 二. 우리들은 일본 국민이라는 신념과 긍지로써 제국의 이상 실현을 위해 정신적·물질적으로 전력을 다하자.
- 三. 지나사변은 우리가 일본 제국의 국가적 이상 실현의 기초에 관계되는 것임을 확실히 파악하고, 작전 및 장기 건설을 위한 온갖 국책의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자.

이에 메이지절(明治節)을 택하여, 우리들은 숙려를 거듭하여 합의를 이룬 바이다.

쇼와昭和 13년(1938) 11월 3일

전前 동우회 회원 일동25)

전향서는 크게 ①종래에 자신들이 독립사상을 품었던 이유에 대한 해명, ② 일본의 조선통치의 진의를 재인식하게 된 경위, ③과거 사상의 청산과 국책 협력에의 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연하자면 과거에 자신들은 일본의 조선통치를 식민정책으로 곡해하여 독립사상을 품었으나, 지나사변에서 명백해진 일본의 국가적 이상과 미나미 총독의 몇 가지 정책과 의사표시를 계기로 일본 제국이 조선 민족을 ‘식민지의 피통치자’가 아니라 ‘제국의 신민’으로서 받아들인 사실을 믿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들도 과거의 사상을 청산하고 천황에 충성을 다하며 국책의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재용은 이 전향서가 이해 10월 무한삼진이 함락된 충격에 압도되어 독립의 길을 포기하고 일본 신민의 길을 택한 이광수의 자발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²⁶⁾ 사실과 다르다. 무한삼진이 함락된 것은 10월 27일이고, 이광수가 동우회사건 보석 출소자들과의 협의하에 경성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각 회원들에게 보낸 전향회의 소집 안내장은 하루 전 날인 26일자로 되어 있다.²⁷⁾

25)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9815號-3, 1938.11.4. <http://db.history.go.kr> 1937년 6월 동우회 회원 검거에서 1940년 8월 2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관한 정리, 각계의 언동, 회원의 동정 등을 보고한 동우회사건 관계 보고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 <국내 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항목 참고.

26) “일본이 승리(무한삼진 함락-인용자)하자 이광수는 더는 조선의 독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사는 길을 택한다. 중국이 건재할 무렵만 해도 독립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지만, 중국이 패망한 후에는 더는 조선의 독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김재용, 「친일 협력의 유형과 계기」, 『풍화와 기억-일제 말 친일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21-24면.

27) “오늘날 시국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과거를 청산한 이 기회에 동 사건 보석 출소자 일동에게 호소하여 적극적으로 황국신민될 참된 성의를 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요사이 수시로 협의 중이던 바,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성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난 26일자 별도 인쇄물과 같이 안내장을 관계자 전원에게 보내고, 예정대로 11월 3일 경사스러운 메이지절을 맞아 앞서 언급한 이광수 집에서 관계자 28명 집합(결석 5명, 미결 재감 8명)하에 사상전향회의를 개최함.” 「同友會事件保釋出所者ノ思想轉

또 김동인이 당시 보석 출소해 있던 家兄 김동원의 부탁으로 기소 중인 동우회원의 진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이광수를 방문한 것은 이미 동년 여름 무렵의 일이다.²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당국의 요구에 맞춘한 전향서의 공식 논리에 가까운데, 실제로 앞서 언급한 6월 18일자 동우회사건 기소유예자들의 전향 성명 또한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吾人は 종래 ‘소위 민족주의’의 관념에 拘泥되어 조선민중의 발전과 향상은 단지 ‘민족자결’에 있을 뿐이라고 固信하여 과거의 吾人の 사상적 及 실천적 諸 노력은 전혀 此信條하에 捧하여 왔다. 대개 五等 조선인은 조선통치를 ‘식민지 정책’으로 國해하여 諸國의 진의와 내선 양족의 東亞史的 신사명을 인식치 못하였든 까닭이다. [중략] ②然이나 最近 수년래의 조선통치상에 現한 비약적 諸 현상 특별히 最近 南總독에 의하여 강조되는 바 내선일체의 聲은 恠연히 오인의 迷妄을 각성케 하는 바가 있다. 특히 今回의 시국에 制하여 내지인이 반도민중에 寄하는 바 동포적 신뢰와 新일본의 國家적 大理想 하에 醞釀되어가는 革新氣運은 금일까지 오인의 抱懷한 一切의 의구와 불안을 일소하도록도 餘함이 있다. [중략] ③吾人は 如上의 이론적 근거와 현실의 諸 경향을 기초로 하여 내선일체 완전한 일원화로서 조선 민중의 進할 유일한 道를 인식하여 新일본 건설의 國民적 근지와 포부 하에 그 一任적 임무를 달하는 것만이 眞히 조선 민중의 장래의 光榮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⁹⁾

向會議開催に關スル件, 京高特秘 第二四九四號(1938.11.5)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9815號-3(1938.11.4)』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 문건이다. 후자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8) “같은 동우회 형사 피고인으로 보석 중에 있던 家兄 동원이 어떤 날 나를 조용히 불렀다. [중략] 동우회의 平南 책임자로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형의 이때의 심경을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독단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형이 내게 한 말이 이광수를 전향 시키어 동우회 40여 명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뜻으로 들었다.” 김동인, 「문단 30년의 자취」(『신천지』, 1948.3-1949.8), 김치홍 편저,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1984, 502면. 방문 시기는 “지난 여름 춘원을 만나러 창의문 밖 산장을 찾은 일이 있다”는 당시의 회고에 의거한다. 김동인, 「춘원과 『사랑』, 『박문』 3, 1938.12, 10면.
- 29) 「前 동우회원의 성명서」(1938.6.1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9』, 위의 책, 614-615면.

이 점에서 이광수가 「합의申訴」에서 명시한 전향의 논리는 그저 공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의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상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향의 공식 논리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전향서의 공식 논리 속에서 ‘제국의 신민’이 된다는 것은 곧 ‘민족의 행복과 영예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른바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무런 모순 없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돌아갈 조국이 없다”고 일갈했던 일본의 전향 지식인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지적과 같이, 식민지 지식인에게 일본 국가로의 전향이란 그렇게 명쾌한 것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민족적 자아에 대한 부정이며 국권 회복에 대한 오랜 민족적 열망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전향서의 공식 논리는 제국과 식민지 간의 존재론적 비대칭성을 수사적으로 은폐 혹은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전향서 「합의」이 총독부 당국을 향해 씌어진 공식 발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전작소설 『사랑』은 식민지의 독자 곧 민족을 향해 은밀한 언어로 쓴 또 하나의 전향서라 할 만하다. 그것은 정치적 전향이라는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사랑의 관계로 치환하여 우회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전향서의 공식 논리가 억압한, 보다 내밀한 층위에서 전향이 제기하는 문제를 명료하게 언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의 3,4장에서는 『사랑』에서 서사화되고 있는 이 내밀한 층위의 전향의 논리와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독자의 기대지평과 만나는 지점에 주목한다. 목표는 전향과 관련하여 당시 공식적인 방식으로 결코 명료화될 수 없었던 식민지 지식인의 내적 곤경이 어떻게 서사적으로 제기되고 해결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이광수 자신은 물론 민족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성찰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3. 순옥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

『사랑』은 기본적으로 애정 서사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의사 안빈과 시인 허영

이라는 두 남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주인공 순옥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빈의 감화를 받아 오랫동안 그를 사모해 온 순옥에게는 학생시대부터 그녀를 쫓아다니던 시인 허영이 뒤따른다. 그런데 이들 관계는 모두 순탄치 않은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기혼남인 의사 안빈에 대한 사랑이 ‘불륜’이라는 세간의 오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허영의 집요한 구애는 순옥이 경멸해마지 않는 동물적인 ‘애욕’에 불과하다. 독실한 안식교 집안에서 성장한 순옥에게 모두 용납되기 어려운 관계들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는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 안빈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허영과의 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기이한 역설의 자리에 순옥을 세운다. 이 조합은 명백히 모순적이며, 따라서 독자는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의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원치 않는 허영과의 결혼이 안빈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단순한 애정 서사처럼 시작된 여주인공 순옥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 또는 이율배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이 같은 순옥의 선택은 동우회사건 당시 이광수가 맞닥뜨리고 있던 이율배반을 그대로 환기한다. 동우회의 운명, 나아가 민족운동의 장래를 위해 전향을 선택해야 했던 역설이 바로 그것인데, 이에 관해 훗날의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나는 시국이 불리함을 모름이 아니었다. 이번 검거가 없더라도 안도산의 구상 이 순탄하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중략] 그러나 아무런 일이 있더라도 위에 말한 한 계통의 사업(동우회사업 - 인용자)은 조선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었고, 또 안도산이라는 큰 사람의 국량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 사건을 무죄로 하여야만 된다고 애쓴 것이었다. 이 사건이 유죄가 되면, 적게는 수백 명 관계자가 국내에서 행동의 자유, 특히 교육계나 종교계나 기타 지도적인 활동의 자유를 영영 잃을 것이요, 흥사단 주지를 띤 사업의 길은 아주 막히

고 말 것이었다. 나는 나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이 자유를 건질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동우회의 사업과 동지들을 살리고 싶었다.³⁰⁾

위의 회고는 종종 위선적인 변명쯤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이를 증거하는데, 『사랑』은 민족을 위해 전향을 선택한다는 그 이율배반이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쓰여진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까닭이다.

앞서 순옥의 모순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원치 않는 허영과의 결혼이 안빈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함축한다. 안빈을 사모한다면서 왜 허영의 구애를 받아들이는가. 안빈을 사모한다면 허영과 결혼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서사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각각 ‘인과적 인연’과 ‘자기희생’의 논리를 제시한다. 요컨대 허영과의 관계는 인연 업보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문제로, 나아가 허영과의 결혼은 자기희생을 전제한 숭고한 결단으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그것은 앞서 언급한 “시국의 불리함”에 대한 증언과 더불어 “나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동우회의 사업과 동지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이광수의 고백을 그대로 환기하는데, 이 점에서 이 두 가지 논리는 그대로 민족을 위한 전향이라는 정치적 이율배반을 해명하기 위한, 곧 전향을 앞두고 민족주의적 신념 또한 쉽게 저버릴 수 없었던 이광수의 내적 곤경이 그 돌파구로서 찾아낸 논리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과적 인연’과 ‘자기희생’의 논리가 민족을 위한 전향이라는 모순적 조합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초)논리적인 설명에 해당한다면, 이후에 전개되는 순옥의 운명은 그 논증의 타당성을 서사적으로 입증하는 데 바쳐진다. 이와 관련하여 허영과의 결혼과 더불어 시작되는 순옥의 수난사와 허영의 죽음, 그리고 순

30) 이광수, 『나의 고백』(1948), 전집 7, 우신사, 1979, 274면.

옥이 안빈에게 복귀하는 대단원의 결말은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허영과의 결혼이 안빈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도정이었음을 구조적으로 가시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허영과의 결혼 이후 순옥의 삶은 저를 잊은, 끝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요약된다. 순옥은 허영의 끝모를 탐욕과 의혹, 질투를 묵묵히 감내하며 그를 헌신적으로 돕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배신과 모욕뿐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녀의 수난도 허영의 죽음과 더불어 마침내 끝이 나고, 순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안빈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허영의 죽음은 순옥이 허영과의 인연 업보를 모두 청산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자 그녀가 안빈의 곁으로 돌아오는 대단원을 예비하고 있는 사건인 셈이다. 순옥이 허영과의 인연 속에서 저를 잊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동안, 안빈의 병원은 세간의 의혹에 휘말리지 않고 요양원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기반을 닦았고 병원의 간호부들도 신실하게 성장했다. 서사는 안빈의 요양원에서 안빈의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기운을 회복한 순옥이 훗날 안빈의 곁에서 완전히 만족한 반생을 보낼 수 있었던 행복을 고백하는 대단원으로 끝이 난다. 순옥의 희생이 안빈과 안빈의 공동체를 지켰고, 나아가 안빈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결말로서 손색이 없다.³¹⁾

사실 순옥의 수난사와 허영의 죽음, 그리고 순옥이 안빈에게 복귀하는 대단원의 결말은 허영과의 결혼을 선택한 순옥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서사적 상상의 산물이다. 이광수는 거기에 동우회사건으로 전향을 앞둔 자신의 미래를 투사했고, 허영과의 결혼과 더불어 시작된 순옥의 수난이 결국 보다 견고해진 안빈의 공동체로 복귀함으로써 보상받는 결말을 통해 자신의 전향과 공동체의 운명에 명료한 비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전향서의 공식 논리 속에서는 결코 발설할 수 없고, 또 발설해서도 안 되는 내밀한 비전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향 곧 ‘제국의 신민’을 자처한다는 것,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31) 이상 『사랑』에 대한 서사적 구조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최주한, 『제국 권력에서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 이광수의 초상』, 위의 책, 138-151쪽 참조

그것은 제국에 귀속됨으로써 ‘민족의 행복과 영예’를 보장받는 길이라기보다 견고해진 민족공동체로의 복귀라는 보다 은밀한 비전과 더불어 잠시 감수해야 할 자기희생의 길이다. 전향서 「합의」과 소설 『사랑』은 똑같이 민족을 위한 전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제국의 전쟁 동원, 그 터널의 입구에서

그렇다면 당대 『사랑』에 열광했던 독자들은 이 무렵 이광수가 품고 있던 그 내밀한 전향에의 비전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던 것일까. 그랬을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도 동우회사건은 동회원 검거에 관한 기사가 나간 이래³²⁾ 대중에게 미치는 여파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일체의 보도가 금지되었던 까닭에,³³⁾ 사건 관계자 주변 인물들을 제외하고 일반 독자들은 자세한 동향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다. 앞서 언급했던 동우회원 일동 명의로 씌어진 전향서 「합의」(1938.11)도 경성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어쩌면 이광수가 전향을 표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거나 훨씬 이후에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대의 독자들이 『사랑』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사랑』은 어느 지점에서 당대 독자들의 기대지평과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

32) 「수양동우회사건 확대 이광수 등 七名을 引致」, 『동아일보』, 1937.6.9; 「수양동우회 간부급 종로서 陸續引致」, 『매일신보』 1937.6.10; 「安島山도 召喚 동우회사건 확대」, 『동아일보』, 1937.6.11.

33) “동우회는 창립 이래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회원들은 손꼽히는 조선인을 망라하고 있는 관계상 본건 검거에 대한 일반인의 반향은 실로 대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도 고려하여 그간의 개황을 경무국에 보고하여 이의 신문계제 금지의 조취를 취하는 한편 [하략]” 「동우회 관계자 검거 및 취조에 관한 건」(1937.6.9), 『도산 안창호 자료집 I』, 국회도서관, 1997, 186면. 실제로 1938년 11월 4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관련 기사 「이광수씨 등 卅三人 臣民의 赤誠披歷」에는 메이지절을 기한 조선신궁 참배 및 국방헌금 결의에 관한 사실만 언급되어 있어서 일반 독자들은 의례적인 동원 행사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또 『동아일보』의 경우 아예 관련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사랑』 전편의 간행을 전후한 무렵은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바야흐로 제국의 전쟁 동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1938년 2월 지원병제도의 공포를 시작으로 하여 동년 4월에는 전쟁에 인력과 물자, 자금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었고, 중일전쟁 1주기를 맞는 7월에는 총독부 당국의 주도로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국책의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는 취지를 내건 관변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설립되었다. 지원병제도를 비롯한 국가총동원 관계 법령의 구축과 더불어 윤치호, 최린, 김성수, 방응모 등 민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원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의 기반까지 마련되었으니, 본격적인 전쟁 동원의 체제는 이미 갖추어진 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⁴⁾

이광수를 비롯한 동우회원의 전향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국의 흐름이 불가역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반 민중 역시 다르지 않았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분통이 터질 지경인데, 바야흐로 남의 나라 전쟁에 물자며 인력이며 정신까지 내주어야 할 판국이니 민심은 들끓지 않을 수 없었다.³⁵⁾ 요컨대 황국신민의 서사를 복창하며 전쟁 동원의 행렬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던 당대의 일반 독자들들과 장차 제국의 나팔

34) 총동원체제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역할에 관해서는 전필수,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재검토」, 『비교문화연구』 22-2, 2016, 430-432면 참조.

35) “일본놈들이 잘난 척해도 우리나라를 빼앗지 않았는가. 지나와 전쟁하면서 강하다느니, 이겼다느니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를 빼앗은 그 주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람은 조선을 빼앗은 뒤 만주를 차지하고, 또 지나를 침략하면서 이번 사변을 동양평화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실이고 사실은 일본이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자민족을 위해서 타민족과 싸우는데 우리 식민지 민족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쟁에 나간 일본놈들은 전부 전사해 버려라.” “일본인이 지나사람과 싸우는데 어찌서 조선사람인 우리가 현금과 위문주머니를 보내야 하는가.” “일본이 패전하면 국체는 반환되지 않으니가 국체 같은 것은 사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은 탄환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뚝그릇을 모으고 있다.” “일본인 부대는 지나의 督戰部隊처럼 후방에서 감독하고 조선인 지원병을 제일선에 내세우는 것이 목적으로 제일 먼저 전사하는 것은 지원병일 것이다.” “소학교 6학년 줄업하면 지원병으로 채용되므로 학교는 졸업하지 말라.” 이상 조선민중의 중일전쟁관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富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이형량 역, 일조각, 1997, 8-26면 참조.

수로서 전쟁 동원의 선두에 나서게 될 이광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있는 셈이었다. 물론 『사랑』에는 이러한 당대 현실의 소음이 완벽하게 소거되어 있다. 현실의 소음이 완벽하게 소거된 세계, 그것은 “時代의 그림”³⁶⁾으로서의 소설이 불가능한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였고, 어쩌면 독자들은 그래서 더욱 『사랑』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지 모른다.

현실의 소음이 소거된 세계에서 독자들에게 육박해온 것은 단연 『사랑』의 여주인공 순옥의 운명 그 자체였다. 단행본 『사랑』의 표지 그림부터가 아무런 배경 없이 여주인공의 모습을 덩그러니 그려놓은 것이었거니와, 당시 박문서관의 편집자가 『사랑』 후편의 脫稿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면서 남긴 다음의 언급에서도 『사랑』에 열광했던 당대 독자들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석순옥’의 꿈과 같이 아름답고 성스러우면서도 괴로운 ‘사랑’은 과연 독자 여러분의 상상하시던 결과와 얼마나 같은 점이 있을는지—피차에 한층 더 궁금합니다.”³⁷⁾



1941년 9판, 현대문학관 소장

사모하는 안빈의 곁을 떠나 원치 않는 허영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순옥, 그리고 허영과의 결혼과 더불어 시작된 그녀의 끝없는 수난의 길. 당대의 독자들은 여주인공 순옥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장차 황국신민의 서사를 복

36) “『무정』을 일러전쟁에 눈 뜬 조선, 『개척자』를 합병으로부터 大戰 전까지의 조선, 『재생』을 만세운동 이후 1925년경의 조선, 방금 『동아일보』에 연재중인 『群像』을 1930년대의 조선의 기록으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 때문인가 한다. 이 졸렬한 **시대의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감정의 고민상을 그렸는지는 내가 말할 바가 아니다. 내 의도가 그것들의 충실한 묘사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광수, 「余의 작가적 태도」, 『동광』, 1931.4, 83면.

37) 「編輯室日誌抄」, 『博文』 4, 1939.1, 30면.

창하며 전쟁 동원의 행렬에 나서게 될 자신들의 운명을 보았고, 그랬기에 더더욱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지 않고 안빈에 대한 사랑의 완성에 대한 신념 속에서 이를 곳곳이 감당해내는 순옥의 희생과 헌신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대단원의 결말에서 순옥이 돌아와 머무는 안빈의 요양원은 당대 독자들에게도 커다란 위로와 위안의 공간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였던 순옥의 운명을 수난과 회복에 관한 덜 구속적인 이야기로 변형시킴으로써 당대 독자들에게도 자신들이 맞닥뜨려야 할 불운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현실에 울분을 터뜨렸던 『무정』의 독자들이 유학에서 돌아온 청년 주인공들이 세운 문명화된 조선의 장래에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듯, 바야흐로 제국의 본격적인 전쟁 동원의 광풍을 예감하고 있던 『사랑』의 독자들은 온갖 수난 끝에 견고한 안빈의 공동체로 복귀한 순옥의 미래에서 흑독한 겨울을 견뎌낸 봄의 희망을 기약했을 것이다. 『사랑』의 여주인공 순옥의 수난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당대 독자들에게 제국의 전쟁 동원하에 놓인 민족의 수난과 그 수난 끝에 맞이할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국내 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 DB.
이광수, 『나의 고백』(1948), 전집 7, 우신사, 1979, 274면.
_____, 『도산 안창호』(1947),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_____, 『사랑』 전·후편, 박문서관, 1941(9판)·1939(초판).
『도산 안창호 자료집 I』, 국회도서관, 1997.
『매일신보』, 『동아일보』, 『박문』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도서출판 선인, 2000,
603, 610, 613-615면.

2. 단행본

- 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이형량 역, 일조각, 1997, 8-26면.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 1999
김재용, 『풍화와 기억·일제 말 친일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21-24면.
노양환, 「해설」, 『정본 사랑』, 우신사, 1992.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3. 논문

-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0, 2012, 17-22면.
김기진, 「춘원의 『사랑』」, 『博文』 3, 1938.12, 26면.
김남천, 「11월 창작평」(『조선일보』, 1938.11.9-13),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 I』, 도서출판 박이정, 2000, 429-431면.

- 김동인, 「문단 30년의 자취」(『신천지』, 1948.3-1949.8), 김치홍 편저,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1984, 502면.
- _____, 「춘원과 『사랑』」, 『博文』 3, 1938.12, 12면.
- 김현주, 「공감적 국민=민족 만들기」, 『작가세계』, 2003, 여름, 75-78면.
-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통합적 논리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 2009.
- 서경석, 「춘원의 『사랑』론」, 『대국어문논총』 14, 1996.
-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 _____,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4.
- _____, 「자기희생의 구조-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 2013.
- _____, 「죄의식, 원한, 근대성: 소세키와 이광수」,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사랑’ 형상화와 자전적 언술행위」, 『구보학보』 13, 2015.
- 이경훈, 「인체실험과 聖戰」, 『동방학지』 117, 2002, 224-242면.
- 이계열, 「사랑의 구현 양상-이광수의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 이태준, 「춘원의 畵作」, 『博文』 3, 1938.12, 27면.
-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02, 80-81면.
- 전필수,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재검토」, 『비교문화연구』 22-2, 2016, 430-432면.
-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0, 2006.
- 주요한, 「작품해설」,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62.
- 차승기, 「고요한 엄숙 고요한 충성-이광수의 예의작법과 감성적인 것의 나눔」, 『한국학연구』, 29, 2013, 145-153면.
- 최주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읽고 있나」, 『근대서지』 17, 2018, 116면.

■ Abstract

Love(1938), Another Statement of Conversion

Choi, Ju-han

In the existing research, the portrait of Lee Kwang-su, who is the author of Love, is called as a different form of 'saint', 'snob' or 'monster'. These three readings are not only confined to their own frames, but also do not explain about Lee Kwang-su at the time of writing on Love, and why readers of the time read it enthusiastically. This thesis starts from a discussion on the place where Lee Kwang-su is placed at the time of writing on Love, that is the Donguhoe Affair. In this regard, I focus on two articles that the statement of conversion Consensus, written in Japanese, and the novel Love written in Korean. The former follows the formal remarks for the governor's office.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is another secret statement of conversion that was written to the colonial reader by allegorically narrating the problem posed by the conversion on the more intimate layer of the oppressed formal logic. The other point is about the possibility that readers of the time, who were dark in the trends of the Donguhoe Affair, could have read Love as a story about their destiny under the war mobilization of the empire. The colonial intellectual Lee Kwang-su, who will lead the war mobilization and the general public under the war mobilization system was basically in the same position, so it was possible to cross the interpretation.

Key words: Lee Kwang-su, Love(1938), saint, snob, monster, the Donguhoe Affair, the statement of conversion, the war mobilization system, readers of the time

202 · 춘원연구학보 제13호

접수일: 2018년 10월 30일

심사일: 2018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09일

www.kci.go.kr